황금돼지해 고객 사은
특별 우대 금리 시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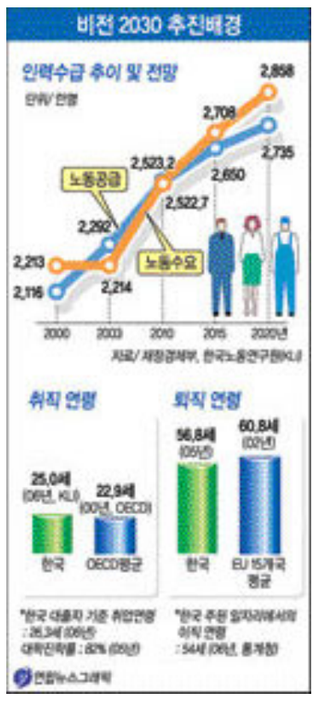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결혼?
눈 높이가 하늘을 찌른다면!
062-226-3222

제1767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7년 2월 6일 (음력 12월 19일) 화요일

군 복무 2014년까지 6개월 줄여

올 입대자 최대 35일 단축



■정부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 발표

만5세 취학·가을학기 등 학제 개편 추진

취학연령 단축과 가을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이 추진되고 군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줄여 2014년 7월 입대한 육군 현역 기준으로 24개월인 복무기간이 18개월로 6개월 단축된다.

또 퇴직 연령을 늦추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개시 나이가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고 현재 권고적 성격의 60세 정년 준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된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5일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지난해 현재 25세인 취직 연령을 2년 정도 낮추고 퇴직 연령은 5년 늦춰 2010년께부터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전략추진위원회'를 구성, 오는 6월 이전에 이번 전략의 분야별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제개편의 경우 수업연한 조정에 따른 교원수급·교육과정·학교시설·법령개정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문가, 국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군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6개월 단축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군입대자는 복무기간이 1~18일, 올 입대자는 19~35일 각각 줄어든다. 정부는 대신 전투·기술 숙련병과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본인의 지원을 받아 일정기간 복무하고 수당을 주는 유급지원병제를 오는 2008년 도입하기로 했다. 나아가 대체복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충역이나 면제자 중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 현역 잉여자원 등을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사회복무제를 도입, 예외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년연장형 고용이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작업시간 단축·직무순환 등의 근무형태 도입으로 소득이 감소하면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보전해주는 지원제도 마련을 검토하고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 대해 연장 기간 중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년연장장려금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설 물가 최고 87% '이상 급등'

과일·수산물 크게 올라 서민 주름살

설을 앞두고 일부 과일값과 수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등 설 물가가 이상 급등현상을 보이고 있어 제수용품 마련에 나선 서민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9면〉

5일 at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와 광주신세계 이마트의 소매물가 조사에 따르면 1개월 사이 배값이 최고 87.6%나 오르고, 감귤 값도 같은기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 조사장소에 따라 32.4%~50.2%까지 상승했다.

특히 감귤 등 일부 청과류의 경우 1주일새 50% 이상 치솟으면서 시장을 찾은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수산물 가격 상승도 두드러져 목포수협 위판장의 생조기(도매가격 기준)가 1상자(250~270마리 들이)당 가격이 1개월전 9만8천원에서 5일 현재 15만원으로 53%나 폭등했다.

축산물의 경우도 청과류와 수산물처럼 폭등 현상은 아니지만 뼛조각 발견으로 미국산 쇠고기 판매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쇠고기 값이 10% 가량 올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설을 앞두고 과일값이 한달새 최고 87.6% 오르는 등 평균 20~30% 상승해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5일 오후 광주시 북구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내 청과상회를 찾은 사람들이 선물용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의료법 개정안 발표

醫協 11일 궐기대회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양·한방 및 치과의 협진 허용과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알선행위 부분 허용, 의사 프리랜스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5면〉

이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의 개정안 전면 백지화 요구를 일축, 입법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협은 이에 맞서 1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의 의사들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정면으로 맞서고 있어 최악의 경우 대규모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와 같은 집단 휴진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주까지 일단 의협과 협상을 벌이기로 했으나 의협의 요구조건에 변화가 없을 경우 올 상반기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연합뉴스

여수, 세계에 알릴 기회 왔다

8·9일 심포지엄 30개국 BIE 대표 참가

정부·전남도·여수시 유치 열기 전해야

'2012년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후보지인 여수를 세계에 알려라.'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여수시가 오는 8~9일 전남대 여수 캠퍼스 등에서 열리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국제 심포지엄'에서 대대적인 유치 교섭활동을 벌인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 열강의 부침을 다룬'강대국의 흥망'저자로 잘 알려진 미국 예일대학교의 폴 케네디 교수를 비롯한 석학들과 세계박람회사무국(BIE) 회원국 대표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여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심포지엄 참석자는 30여개국 BIE(국제박람회사무국) 대표를 비롯한 박람회 관계자를 포함해 국내외 인사 등 모두 270여명. 대표적인 참석 예정자는 우지엔민 BIE 총회 의장과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을 비롯한 박람회 관계자와 학자들이다.

여기에는 여수 엑스포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에 관해 기조연설할 폴 케네디 예일대학교 교수, 케네스 셔먼 미국 상무부 해양대기청 해양생태연구소장, 리니오 부르토메소 이탈리아 베니스대학 교수, 헤르클레스 하라람비드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해양경제물류센터 소장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국내에서는 한국해양연구원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전문 연구위원과 오임상 서울대 교수, 이규형 전남대 교수 등 해양 관련 주요 석학들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한국과 모로코, 폴란드 등 2012년 엑스포 유치 신청 3개국가별로 2회씩 개최토록 되어 있는 심포지엄 가운데 중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첫 행사를 맞아 여수를 대대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박람회 여수 유치를 위한 교섭 활동과 함께 2012 여수엑스포의 주제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형성과 여수 알리기에 나선다.

여수시는 행사 이틀째인 9일 오후 BIE 대표단과 해외인사들을 여수 신항 2부두 엑스포 후보지, 홍보관 등으로 안내해 현장설명할 예정이다. 또 후보지 주변 주요 사회간접자본인 국도 17호선 공사 현장도 살펴보게 해 여수시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전한다.

심포지엄 준비를 총지휘하고 있는 오현섭 여수시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BIE 회원국 대표 등에게 엑스포 준비 상황과 시민들의 유치열기를 전해 연말 표결에서 한국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제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http://marathon.kwangju.co.kr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